의상 세우고 민초들이 寺名 바꿔



지금의 연주암은 677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관악사가 시작이다. 효령대군이 조성했다고 알려진 연주암 3층석탑과 연주암 전경.



연주대 응진전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677년 의상대사 관악사 창건
고려신하 · 효령 전설로 개명
고려충신 강득룡 · 서견 · 남을진
조선 양녕 · 효령 마지막 거처

해발 629M 절벽에 응진전
삼층석탑 효령대군이 조성
연주대 이성계 · 무학대사 조성

이성계 조선왕조 번창 기도
명성왕후도 중수불사 지원
억불시대서 불교 명맥 지켜

'과천 연주암'

B1면에서 계속

하지만 위의 이야기는 그 어떤 사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해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어떤 시비도 없다. 문자로 남는 것만이 기록은 아니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록은 오히려 튼튼했다. 불에 탈 염려도 없고 바람에 날아갈 일도 없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관악사를 연주암으로, 의상대를 연주대로 바꿔 부르게 된 연유가 들어있다.

관악사의 바뀐 이름 연주암은 고려를 잊지 못한 신하와 시절의 선택을 받지 못한 조선의 두 왕자의 심정을 후대의 사람들이 도량의 이름으로 바꿔 부른 것이다. '연주암' 은 그리움의 도량이다. 그것도 한 시대 한 나라를 잊지 못한 그리움이다. 그리움이 머물고 그리움을 끊어낸, 참으로 애틋한 도량이다. 후대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이다. 암자의 이름은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애틋하게 살아낸 자리라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 내일을 물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의상대에서 의상의 시절을 지우고 대중의 그리움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연주암은 677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관악사가 시작이다. 연주대가 의상대였던 것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연주암중건기〉 등의 자료에는 의상 스님이 관악산에 의상대를 세우고 수행했으며, 그 아래에 관악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존 유물이라든가 의상 스님 관련 문헌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존하는 경내의 3층석탑이 고려후기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어 창건 연대를 최소한 고려부터 시작할 수 있다.

길은 어느덧 산문에 가까워진다. 남은 길보다 지나온 길이 더 많아졌다. 남은 길보다 지나온 길이 많아진다는 것은 뒤돌아 볼 것이 생겼다는 뜻이다. 뒤돌아 볼 것이 많아진다는 것, 그것은 그리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연주대에 서다

가을꽃처럼 보였던 관악산 봉우리가 눈앞에 다가온다. 마침내 연주암이다. 마지막 돌계단을 오르면 바로 마당이다.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팽팽했던 몸과 마음이 꽃잎처럼 흩날린다. 백구나 황구는 보이지 않는다.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4호)이 중심을 잡은 도량엔 스님의 기도소리가 들려온다. 산 정상에 열어놓은 아담한 도량은 단정하고 한가롭다.

연주암은 의상대사가 관악사로 창건한 이후 고려 말까지 거의 폐사되다시피 했다.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가 의상대와 관악사를 중수하고 조선왕조의 번창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연주대는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뜻을 따라 의상대 자리에 석축을 쌓고 마련한 암자다. 연주암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다. 1868년(고종 5) 중수 때에는 명성왕후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1918년에는 경산 스님의 불사가 있었고 1928년에는 재운 스님, 1936년에는 교훈 스님의 불사가 있었다.

연주암의 백미 연주대로 간다. 연주대로 가는 길에는 효령대군의 영정을 모신 효령각이 있다. 전설 속의 양녕과 효령 이야기는 정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효령이 불교에 마음을 쓴 것은 사실이다. 그는 배불의 조선 속에서 수륙재를 열고 회암사의 중수를 이끌고 흥천사 탑전을 보수하는 등 유학자들의 온갖 비난을 무릎 쓰고 배불에 동참하지 않았다. 연주암 삼층석탑을 조성했으며 원각사 조성도감도제조를 맡기도 했던 그는 1465년에 〈반야심경〉을 언해했으며 주로 사찰에서 칩거하며 수행했다. 배불과 억불로 나라를 이끌려했던 조선은 끝내 불교를 버릴 수 없었다. 아니 불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니 불교는 사라질 수 없었다. 효령이 아니더라도 그 예는 조선사 전반에 걸쳐 꾸준히 있어왔다.

연주암 큰마당에서 약 400M를 올라가면 연주대다. 연주대 법당으로 들기 위해서는 바위틈으로 난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한다. 스님의 독경소리가 벼랑 끝에서 들려온다. 3평도 안 되는 응진전에는 스님과 불자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스님의 독경소리를 들으며 응진전 앞에 선다. 산 아래가 한 눈에 들어온다. 연주암도 한 눈에 들어온다. 한 눈에 들어온 세상은 왠지 다른 세상처럼 보인다. 아마도 전설로 남은 그들의 이야기 때문인 듯하다. 그 옛날 고려의 신하들과 조선의 왕자들은 이곳에서 그리움을 바라보았고 그 그리움과 작별했다. 그리움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 없는 나한의 품을 짓고 그 애틋한 시절을 끊어냈다. 그들은 이곳에서 그 그리움의 세상을 잘라냈다.

많은 산새들이 응진전 앞을 드나든다. 그 날도 새들은 날고 바람은 불었을 일이다. 그들이 들었던 산새 소리와 그들이 맞았던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리움, 그 필수불가결의 단어에 마음을 던진다. 중생의 삶에서 필수불가결인 그리움, 그것은 끊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간직해야 할 것인가. 스님의 기도염불 소리가 산 아래로 내려간다.

연주암 가는 길

길은 많다. 방법은 하나다. 걸어서 가야 한다. 대표적인 코스는 과천 쪽에서 오르는 길과 서울대 쪽에서 오르는 길 두 가지다. 과천 쪽은 과천역 7번 출구에서 시작한다. 과천향교 쪽으로 이동해서 등산로를 이용한다. 서울대 쪽은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서울대 공대로 이동해 등산로를 이용한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